

이태원발 집단감염 일파만파 5·18 40주년 기념식 차질 빛나

전국서 코로나19 확진 119명...불특정 대상 3차 감염 발생 조짐
광주시 방문자 330명 검사...방역 뚫리면 5·18행사 취소 불가피

5·18 40주년을 앞두고 소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공격대상도 1살 어린이부터 초·중·고생, 그리고 80대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감염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클럽 수도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3차 감염마저 발생할 조짐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불혹'을 맞은 5·18 행사를 의미 있게 치르려 했던 광주 시민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폭 축소된 5·18 기념 행사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광주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웅섭 광주시장도 답답했던지 최근 시청 간부회의에서 "은 국민과 세계인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작품을 기획 할 것을 당부했는데,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관련 공직자들을 질책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 메시지 전달을

통해 침체한 5·18 4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는 게 5월 관계자의 말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18과 관련한 28개 행사 중 5·18 전야제 등 9개 행사를 취소했으며, 기념식 등 주요 9개 행사도 대폭 축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은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석자는 400명 안팎으로 최소화한다.

하지만 5·18 4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여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자칫 이번 주말 코로나19 방역망이 뚫릴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5·18 행사의 취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역모범 도시인 광주는 다행히 지난 3월 8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이태원발 감염 사태에 대해선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 사이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또는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지역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자진신고 및 검사를 요청했던 이태원 클럽 6곳 외에도 또 다른 클럽과 같은 시기 서울 흥대

주변 유흥가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의 추가 감염도 우려된다. 또 감염추정 기간이 늘어날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방문신고 기간을 4월 24일로 5일 앞당기고 대상 지역도 이태원 소재 모든 유흥업소 등으로 확대해 자진신고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집계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전날 203명보다 127명이 늘어난 330명으로 28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49명은 검사중이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2명은 자가격리됐다. 전국 확산세도 워낙 강해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9명으로 전날보다 8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이며, 전북을 비롯한 경남·제주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전국적으로 2만 2000여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2·3차 전파로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2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유흥시설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웅섭 광주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내 집단 감염의 전파자가 된다면, 5·18 40주년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을 거듭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님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손 잡은 두 주역



13일 오전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 앞에서 열린 '님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식에서 황석영 소설가(오른쪽), 김종률 작곡가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상징곡이자 오월의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장소를 기념하는 표지석이 13일 문예회관 국악당 옆에 세워졌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 소설가가 '뫼비우스'를 개작해 만든 가사에 당시 전남대생이던 작곡가 김종률이 곡을

붙여 1982년 완성됐다. 노래 녹음은 82년 4월 황 소설가의 집 2층에서 '방음'을 한 상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시대의 아픔을 담은 노래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 표지석이 세워진 문예회관 국악당 자리는 당시 황 소설가의 옛 집터가 있던 곳이다. 한편 이번 표지석 제막식은 광주문화

재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광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 제막식에서 반백이 돼 손을 맞잡은 황 소설가(오른쪽)와 김 작곡가(세종문화재단 대표)가 노래가 탄생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감회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전남 관광객 6000만명 첫 돌파 6255만명...경기도 이어 2위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1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255만명으로 관광객 규모로는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 이 발표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는 2018년 대비 1182만명 증가한 625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관광객 7703만명이 다녀간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와 CCTV 자료, 유료관광지 입장권 판매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5월 입장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년 대비 4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은 목포시와 광양시, 신안군, 해남군, 담양군,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등 8개 시군이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으며,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순천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남 관광객이 급증한 것

은 지난해 4월 개통한 천사대교, 9월 개장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체류형 관광지 등으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고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남도의 6000만 관광객 유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전남 관광객 1276만명 대비 올해는 847만 명으로 3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18일 5·18 40주년 광주서 최고위원회의...통합당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체 당선인들이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 당선인 전체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결정기로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참

배에는 지도부뿐 아니라 민주당 21대 총선 당선인 전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등은 18일 오전 245발의 탄환 원형이 보존된 전일빌딩245 9층과 10층을 둘러싼 뒤 전일빌딩245 4층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연다. 이어 개별 이동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당선인들과 함께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이형석(광주 복구를 국회의원 당선인) 위원장은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항쟁임을 모든 국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오는 18일 광주를 찾는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은 광주행 기자회견을 끊어냈다. 장제원 의원, 김용 당선인을 비롯해 천하람·김재섭 전 후보 등도 개별적으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나도 인공지능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에서 그 길을 찾으세요!

1 교육비 무료
교육비는 무료, 교육 장려금도 지원

2 숙식 제공
걱정 없이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식사 등 제공

3 밀착 멘토링
독학은 이제 그만!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한 전담 TA와 기업 실무진 멘토링

4 취/창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으로 취업과 창업의 지름길 제공

5 우수교육생 지원
성적 우수자에게 경연 시상금과 해외연수 기회

※ 자세한 사항은 모집 홈페이지 참조 (bit.ly/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 ☎ 062-610-2451, 062-613-3825

광주광역시 GITC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LIKE LION
맞춤형 인재 양성